

방사능 오염 日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

국내 해역에 128만3472톤 방류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 왕래 선박 평형수 통해

김중희 의원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 실어올 때 공해상서 버린 뒤 국내 입항 의무화할"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생수병 기준 6억4000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오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바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된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만74t 등 모두 135만 7327t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만7371톤, 치바 99만9518톤 등 총 128만3472t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바닷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수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역학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며 세슘이 많이 침투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안전 도외시한 직무유기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 3월~2017년 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 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중희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뒷집만 질 것이 아

나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MBC 이용마 기자

복막암 투병 끝 별세



MBC 이용마 기자가 향년 50세로 세상을 떠났다.

MBC는 "이용마 기자가 오늘 오전 6시44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뜨겁게 싸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장례를 시우장으로 치를 계획이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사는 해직기간 발견된 복막 증괴종으로 치료를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수영씨와 자녀 현재, 경재씨가 있다. 고인은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후 1996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보도국 사회부, 문화부, 외교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다. 2011년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홍보국장을 맡았으며,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을 이끌다가 2012년 3월5일 해고됐다. 5년9개월만인 2017년 12월8일 MBC에 복직했고, 12월11일 마지막으로 출근했다. /뉴시스

“일왕 즉위식, 한일 관계 가장 중요한 포인트”

김상조 靑 정책실장, “아베 정부 개각 자민당 직제개편 기점 대화 기류 생길 수도”



김상조 靑 대 정책실장은 21일 내부히토(德二) 일왕 즉위식을 한일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회자의 질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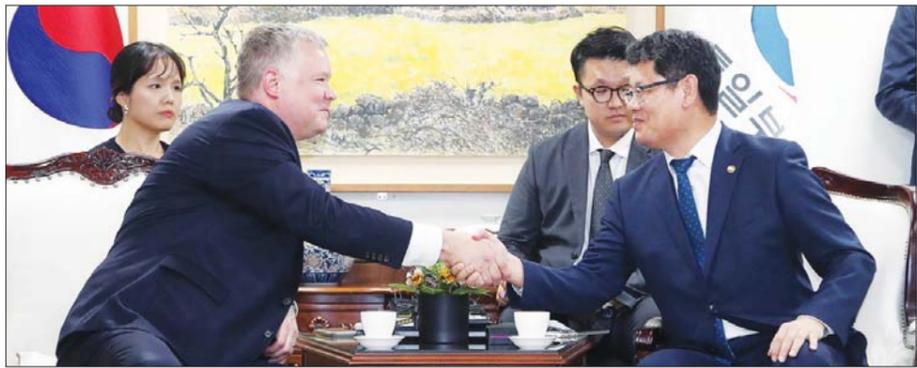
이어 “다만 그것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단기간 이뤄지기 힘들다”며 “9월 중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 집권 여당의 직제 개편이 이뤄지고, (그 때에 한일 간) 대화 기류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건들로 ▲아베 정부 개각(9월) ▲자민당 직제개편(9월) ▲일왕 즉위식(10월) 등 크게 3가지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 중 일왕 즉위식 전후를 현재 멈춰 있는 한일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가 가장 유력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점으로 전망한다

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하게 대화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0월 일왕 즉위식 참여 여부와 참여한다면 어느 수준의 참여단이 갈 것인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는 정말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이뤄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중국 봉쇄전략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지금은 G2 간의 치킨 게임으로 비화되는 상황에 있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은 양립하기 어려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행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베리아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교량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신박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G2 전략에 균형되게 대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것이 양국의 입력으로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기본적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리더십에 경의... 비핵화 진전 기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통일부 찾아 김연철 장관 “신뢰 회복이 중요... 한미 긴밀 공조 기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1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위 팀이 함께 진행하는 노력들 덕분에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줬고,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의 장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특히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판문점에서 함께 이동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등”이라며 “이와 같은 모습은 어느 누구도 예상 못 했던 역사적 일들이

있고,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촉진된, 마련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일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며 “오늘 (김연철) 장관과 나눌 이야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진전을 조만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착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에서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내일 정책토론회

최근 대안정치연대 출범에 따라 오는 23일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주관, 국경포럼 주최로 ‘왜? 정치체력 교체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치 미래는 안 된다’는 민심 저변의 목소리를 역량 있는 학계와 정계 인사들이 묵직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정당의 명사정치? 정치시스템에 의한 정당정치?’를 필두로 정치

세력교체를 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한 토론, 진짜 보수는 무엇이고 진짜 진보는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 경제난 극복에 대한 토론, 향후 총선과 대선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인 김용신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가고, 발제자로는 나종일 박사(국방대학교 석좌교수), 최용식 소장(21세기경제학연구소)이 참석한다. 토론자로는 이인재 박사(한국육군주립대 석좌교수), 이차복 박사(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연근 박사(원광대 초빙교수), 배준현 상임대표(청포도포럼)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주민 간담회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비회기 중에도 도서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일간 옥도면 여청드리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장에서 주민들은, 1980년대까지 주변에 어족자원이 풍부해 어업이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기후변화 및 물고기 남획 등에 따른 어족 자원 감소로 인한 생계유지 어려움, 군산에서 바닷길로 약 60km나 떨어진 오지인 점, 지역 생태 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어족 자원 확대를 위한 인공어초 조성 확대, 지역민을 위한 어업용 부잔교 조성, 불법어로 행위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사람 중심의 글로벌 마인드 대학!**

원광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9. 9. 6(금) ~ 9. 10(화) ☎063-850-5262(입학관리과), 5266(입학사정관실)